성 명 서

(사)대한산란계협회
Korea Egg producer association

메 일: 2343206@naver.com 전 화: 043-234-3206 팩 스: 043-234-3207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1길 20-2, 2층 배 포 일: 2026.11.18

계란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식탁을 위한 2027년도 국회 예산 반영 촉구!

- 산란계 농가가 무너지면 국민의 식탁도 위태롭다! 정부와 국회는 계란산업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 -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먹거리인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지원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반복적인 발생과 생산비 상승, 폭염 등 자연재해로 산란계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로 인해 산란계농가는 정부지원 없이는 경영악화나 부채로 폐업하거나 산업은 붕괴 될 수밖에 없다. 농가의 시설 개선과 상당한 투자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생산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계란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지원 예산을 반영하라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 강화에 따라 농가들은 기존 사육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시설 개선 등 불가피한 투자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계란 생산시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데다 생산비와 금융 부담까지 커지고 있어 농가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충분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육 규모 감소와 계란 생산량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민의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육환경 개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2027년도 국회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계란 소비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조기 재입식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축산자조금 지원 예산을 반영하라

축산자조금은 산란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각종 재해로 생산기반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계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자조금 사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에 협조한 농가가 이동제한 해제 이후 신속하게 병아리를

재입식하고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가의 경영 회복뿐 아니라 계란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아울러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영양제와 열 차단 도포제 지원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농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계란 소비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재해 예방을 위한 축산자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

셋째,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한 계란 납품단가 인하사업 예산을 반영하라

계란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으로, 가격 변동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계란 납품단가 인하사업은 계란 공급과 유통을 지원하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히 계란 가격을 낮추는 차원을 넘어 생산농가와 유통시장, 소비자를 함께 고려한 수급안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계란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한다.

넷째, 산란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최종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라

산란계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민생물가를 지키는 일이다. 사육시설 개선과 농가 경영안정, 가축질병 및 자연재해 대응, 계란 수급안정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산란계산업이 처한 현실과 정책적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2027년도 산란계산업의 핵심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1월 18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